

##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정원<sup>1)</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농어촌 지역 영아는 영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취업중일수록, 읍지역보다는 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반대로 가구내 유아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내 조모 및 기타 가구원이 있을수록 보육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특히 높은 면 지역에서는 대리양육의 필요 외에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영아기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 특히 면지역의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이용을 장려하고,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보육시설 이용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영아, 농어촌

\*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음.

1)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 I.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보육 사업의 본질은 단순 ‘탁아’에서 교육과 보호의 의미가 혼합된 ‘보육’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었고,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2008년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어 오면서 ‘보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특히,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시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어 보육시설 이용 인구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영유아 보육예산은 2004년 9266억원에서 2007년 2조 2천억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보육아동수도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당시 총 영유아수(3,497,255명)의 25.5%인 930,252명에서 2007년 12월 현재 1,099,933명(총 영유아의 36.8%)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사업에 대한 이러한 대대적인 ‘투자’는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가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때마침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문턱은 현저히 낮아졌고, 보육시설 취원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여전히 연령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2004년 전국 교육·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아는 11.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유아는 38.9%가 이용하여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았고,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영유아의 39.1%가 보육시설을 이용해 대도시(24.9%), 중·소도시(26.2%)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지역별·연령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행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별·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의 차이로부터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읍면지역(농어촌 지역)의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행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는 육아 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

##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져 있다. 농어촌 지역은 젊은 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지속적 유출로 인해 아동의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어 특히 아동 인구 밀도가 낮다. 또,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은 도시 가계 평균소득 수준보다 낮고,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취업모의 비율도 도시지역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서문희 외, 2006). 취업모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도시 지역의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길고 일정하지 않은 농어업에 가족무급종사자로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취학전 아동이 있을 경우 보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유아에 비해 보육시설이나 기타 기관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영아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의 영아는 보육시설이나 기타 기관의 이용률이 도시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를 통해 농어촌 지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와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에 농어촌 지역의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기초로 추출된 변인들 중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선행 연구 분석

가구원수, 소득,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 여부, 아동의 연령 등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가구원의 경우, 가구원수나 친조모·외조모 등 친인척과의 동거 여부 등이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부와 자녀 외에 자녀를 돌봐줄 대체인력이 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 돌봄의 대체인력이 없는 핵가족보다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서문희, 2001; 김지경, 2005). 우리나라 부모들은 영아는 가정내 양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이정원·이윤진, 2008) 부모 외에 가정에서 일 대 일로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이러한 영향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대상 영유아 외에 오히려 돌봄을 요하는 가구원이 가구내 더 존재할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짐작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구내 돌봄 인력이 될 수 있는 가구원이 아니라 돌봄을 더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의 자녀가 더 존재한다거나 조부모가 아동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인력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오히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수’나 ‘조부모 동거여부’ 등은 연구에 따라서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가구 소득’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영향력은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2004년도에 실시된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서문희 외, 2005)에서는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아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보육·교육 서비스의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수준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 연구로 전세경(1994)에 따르면, 사무직·전문직 고소득 계층은 가족이나 개인탁아를 대체양육 방법으로 주로 이용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 탁아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지경(2005)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수준과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뿐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시설 이외 학원,방과후 교실, 유치원 등 모든 형태의 교육·보육 기관의 이용률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관한 이정원·이윤진의 연구(2008)에서는 미이용 아동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이 312만 2천원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292만 2천원보다 약 20만원 정도 평균 소득이 높았다.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정병오(2007)의 연구에서도 보육시설 이용 가구가 이용하지 않는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소득이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층이나 장애여부 등 아동의 특성과도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정부의 보육비 지원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실증 연구의 축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

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특히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행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생각과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김지경(2005)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40대나 20대인 경우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Berinde(1999)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질 높은 공적 주간 보육(day-care)센터를 많이 이용하며, 이러한 여성의 셋째 자녀 출산율도 저학력 여성보다 높다고 나타나고 있다. Lehrer와 Kawasaki(1985)의 연구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여성일 수록 대체양육의 방법으로 친척에 의한 개인 양육보다는 공공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지경(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고졸 이하 학력인 경우 이용률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의 경우보다 높았고, 반면 김지경(2004)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각 국가의 보육서비스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지경(2004; 2005)에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서문희 외, 2005)에서도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상태인 경우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 학력, 취업 여부 등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그 영향력이 매우 일관되며 영향력의 크기도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거주하는 지역도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39.1%로 대도시 24.9%, 중소도시 26.2%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김은설 외(2007)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 대상 영유아 1,218명중 50.3%인 613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매우 높았다. 2007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이 36.8%인 것과 비교하면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아동 양육 형태를 비교한 Atkinson(1994)의 연구에서는 0~2세의 영아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보육시설 등의 시설 형태 이용이 도시지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도 이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차등보육료의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농어촌 가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졌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보육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보육시설 공급과 서비스의 질,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해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농어촌에서 0~5세의 영유아가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주된 설문 내용은 이들의 육아 현황과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 및 의견에 관한 것이다. 이 조사는 농어촌의 유형을 농업 외 산업 증가지역과 농업 주력지역, 도시인접지역·산간해안지역·중산간평야지역, 생활의 질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등 세 가지 유형 구분 방식에 의해 8개 유형으로 지역 구분을 하여 각 지역유형의 영유아 인구수의 일정 비율씩을 표집하였다. 이들 1,000가구 중 영아가 있는 가구는 572가구, 유아가 있는 가구는 646가구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572가구의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7년도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가구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인 가구의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유무와,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별 자녀수, 영유아별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종류를 묻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영아자녀중 가장 연령이 높은 영아를 '대상 영아'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2. 변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종속변수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이용=1, 미이용=0)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보육시설, 혹은 보육·교육 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이 선정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영유아의 보육·교육 기관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은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대체인력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구특성요인,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경제적 요인, 아동의 양육 방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특성 요인, 보육·교육 환경과의 관련성을 가지는 지역적 특성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 다음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첫째, ‘가구 특성 요인’에는 가정내 아동을 돌볼 대체인력의 여부를 보여주는 조부, 조모의 동거여부(동거=1, 비동거=0), 가정내 혈연·비혈연 기타 가구원수, 총가구원수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가정내 대상 영아 외 다른 영아를 포함한 영아자녀수, 가정내 유아자녀수, 가정내 초등학교 자녀수도 포함되었다. 이는 가구내 성인 가구원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대체인력이 될 수도 있으나, 대상 영아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 자녀가 더 존재할 경우 오히려 가정내 돌봄의 수요가 많아 보육시설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필요를 더할 수 있고, 돌봄의 수요도 다른 자녀의 연령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 영아 자녀 외의 다른 영아자녀의 수, 유아자녀의 수, 초등학생 자녀의 수를 각각 다른 변수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따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를 이용할 때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 이용의 대상이 되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는 수준인지의 여부,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이러한 기관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관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교육 기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경제적 요인으로 ‘가구 소득 수준’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질문지에서는 가구소득수준을 농번기와 농한기의 소득에 대해 평균적

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답하도록 하였으며, 50만원의 간격으로 '50만원 미만=1'에서 '500만원 이상=11'까지로 측정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그리고 취업여부가 변수로 투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체력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학력과 함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업여부는 선행연구에서도 보육시설 또는 대리양육을 이용하는데 매우 영향력이 큰 변수로 지적되고 있고, 영아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는 변수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특성 요인에는 어머니의 연령·학력과 함께 취업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요인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지역인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지역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농어촌 지역내에서도 면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농어업 종사비율이 더 높고, 보육시설 외 다른 보육·교육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읍지역과 면지역의 지역차이가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읍지역인 경우 1, 면지역일 경우 0으로 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분변수인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이용=1, 미이용=0)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투입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한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에 따르면 본 조사의 대상이었던 영아가구 572 사례 중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경우가 33.2%,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66.8%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두 배 정도 많았다. 다음, 가구특성에서 총가구원수는 평균 4.28명이며 총가구원수가 4~6명인 경우가 67.8%로 대부분의 가구가 이 범주에 해당하였다. 가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조부나 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7%, 26.7%로 조모의 동거 비율이 다소 높았고, 이외 혈연·비혈연의 기타 가구원은 없는 경우가 94.1%로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기타 가구원이 있는 경우,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3.7%).

즉, 대부분의 농어촌 영아 가구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며, 그 외의 친인척으로는 조부나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부분 핵가족의 형태를 띠는 상태에서 영아는 평균 1.13명, 유아가 0.4명, 초등학생이 0.22명으로 대상 영아를 포함해 자녀수는 평균 1.75명으로 2명에 미치지 못하고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보다는 같은 연령대의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영아가 있는 가구의 어머니의 연령이 평균 32.1세로 매우 젊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임·어업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15.6%에 불과하고, 근로자 월급여를 받아 살아가는 경우가 62.6%에 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라 하여도 전형적인 농어업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농어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의 범주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하고 있고(36.4%), 300만원 미만의 가구가 79.1%에 달하고 있다. 2008년도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이 36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비록 2007년도에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라고 하여도 조사 대상이었던 농어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가 65.5%로 가장 많고, 20대가 28%로 대부분 20~30대에 분포하는 젊은 층이었고, 학력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고졸이 52.2%, 대졸이상이 41.6%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66.5%가 취업 중으로 조사시점인 2007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인 51%보다 현저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아가구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읍/면 구분별로 살펴보면, 읍지역이 41.1%, 면지역이 58.9%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 농어촌 영아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범주	변수	내용	빈도(%)	평균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특성	보육시설 이용 여부(n=572)	이용	190(33.2)	
		미이용	382(66.8)	
가구 특성	총가구원수(n=572)	3명이하	156(27.3)	4.28
		4~6명	388(67.8)	
		7~9명	26(4.6)	
		10~12명	2(0.3)	
	조부동거여부(n=572)	동거	97(17.0)	
		비동거	462(83.0)	
	조모동거여부(n=572)	동거	153(26.7)	
		비동거	419(73.3)	
혈연·비혈연 기타 가구원수(n=572)	없음	538(94.1)	.09	
	1명	21(3.7)		
	2명	9(1.6)		
	3명이상	4(0.7)		
영아자녀수(n=572)	1명	498(87.1)	1.13	
	2명	71(12.4)		
	3명	3(0.5)		
유아자녀수(n=572)	없음	354(61.9)	0.4	
	1명	208(36.4)		
	2명이상	10(1.8)		
초등학생자녀수(n=572)	없음	462(80.8)	0.22	
	1명	95(16.6)		
	2명	15(2.6)		
경제적 특성	주소득원(n=572)	농·임·어업	89(15.6)	
		상업·가내공업	112(19.5)	
근로자 월급여		358(62.6)		
이전소득(국가,자녀)		13(2.2)		
월평균가구소득(n=572)	100만원 미만	175(13.1)		
	100~200만원 미만	208(36.4)		
	200~300만원 미만	169(29.6)		
	300~400만원 미만	83(14.5)		
	400~500만원 미만	25(4.4)		
500만원 이상	12(2.1)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머니의 특성	연령(n=565)*	20~29세 30~39세 40~49세	158(28.0) 376(65.5) 31(5.5)	32.1
	학력(n=565)*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1(1.9) 24(4.2) 295(52.2) 235(41.6)	
	취업여부(n=565)*	취업 미취업	376(66.5) 189(33.5)	
지역 특성	읍면지역(n=572)	읍 면	235(41.1) 337(58.9)	

주: \* 결측치=7

## 2.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결정요인 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농어촌 영아가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경우는 33.2%,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66.8%였는데, 이처럼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77.404로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독립변수들의 계수는 0과 같다” 혹은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귀무가설(영가설)을 검증한 것이므로(김호정·허전, 2008),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4%로 비교적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 특성 중에서는 조모동거여부, 기타가구원수, 영아자녀수, 유아자녀수가,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는 취업여부가, 그리고 지역특성인 읍지역 여부가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방향은 B와 Exp(B)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는 Exp(B)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B의 부호가 ‘+’이면 내부값이 ‘1’인 집단<sup>2)</sup>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B의 부호가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0인 집단<sup>3)</sup>에 속할 가능성이 크

2)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에 해당함.

3)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에 해당함.

며, 또한 Exp(B)가 1보다 크면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0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김호정·허전, 2008). 또한 Exp(B)의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Logistic regression)

독립변수	B	S.E	Wald	Sig	Exp(B)
총가구원수	.285	.171	2.787	.095	1.330
조부동거여부(동거=1,미동거=0)	-.264	.366	.521	.470	.768
조모동거여부(동거=1,미동거=0)	-.692*	.324	4.550	.033	.501
혈연·비혈연 기타 가구원수	-.777*	.349	4.949	.026	.460
영아자녀수	.928**	.314	8.717	.003	2.529
유아자녀수	-.550*	.257	4.587	.032	.577
초등학생자녀수	-.237	.278	.727	.394	.789
월평균가구소득	-.093	.050	3.465	.063	.911
어머니의 연령	.025	.024	1.073	.300	1.025
어머니의 학력	.027	.156	.030	.863	1.027
어머니의 취업여부(취업=1, 미취업=0)	1.150***	.220	27.220	.000	3.159
읍지역여부(읍지역=1, 면지역=0)	-.901***	.213	17.838	.000	.406
상수	-3.025	1.098	7.585	.0095	1.330

-2Log likelihood=635.700,  $X^2=77.404(p=.000)$

분류표에 의한 예측 정확도=74.0%

이를 토대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 특성에서는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기타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아자녀가 많을수록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반면 영아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구원 중 조모와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영아 자녀를 부모 대신 돌보는 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기타가구원이 많을수록 또는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 영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돌봄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아자녀수가 많은 경우 영아 중 가장 연령이 높은 본 조사 대상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어 돌봄의 부담을 덜고자 할 수 있으므로, 이도 또한 타당한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유아가 많을수록 대상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 중 유아와 영아가 모두 있는 경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 영아보다는 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에 보내 돌봄의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는 연령이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중인 경우에 비해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영아는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을 기피하지만 어머니가 취업중인데 가정 내에서 영아를 돌봐줄 인력이 없는 경우라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아가구 572 사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190사례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특히 취업모와 같이 자녀를 대신 돌봐줄 인력이나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돌봐줄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Exp(B)의 크기가 가장 커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의 결정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 보육시설 이용 영아-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남들이 다 보내니까	계
전체	40.5(77)	22.1(42)	1.6(3)	32.1(61)	1.1(2)	2.6(5)	100.0(190)
지역별							
읍	41.5(22)	20.8(11)	.0	28.3(15)	3.8(2)	5.7(3)	100.0(53)
면	40.1(55)	22.6(31)	2.2(3)	33.6(46)	.0	1.5(2)	100.0(137)

지역적인 특성도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지역보다는 면지역에서 영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가능성이 높았다. 읍지역은 특히 보육시설 외 유치원이나 학원 등 모든 교육·보육 서비스를 합한 이용률이 면지역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농어촌 영아 572사례 중 읍지역 사례는 235명, 면지역 사례는 337명이었고,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읍지역 사례의 27.6%인 65명, 면지역 사례의 44.2%인 149명

이 보육시설·유치원·학원 등을 포함하여 교육·보육 서비스 중 어느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지역은 읍지역에 비해 영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고,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91.9%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읍지역(81.5%)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률도 높았다.

<표 4> 지역규모별 영아의 보육/교육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계
전체	88.8(190)	5.6(12)	5.6(12)	100.0(214)
지역별				
읍	81.5(53)	7.7(5)	10.8(7)	100.0(65)
면	91.9(137)	4.7(7)	3.4(5)	100.0(149)

주: 기타는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이 포함됨.

이러한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는 영아에 대해서는 읍지역 보다는 면지역에서 교육·보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며,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육시설 이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특히 앞의 <표 3>의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 이유를 보면, 다른 이유는 읍면지역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면지역에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필요에서 보육시설을 보낸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이 넓고 아동 인구수가 적어 주변에 아동이 적은 면지역에서는 자녀에게 또래 아동과의 접촉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영아의 경우도 보육시설 이용을 조금 더 앞당기게 되는 것이 면지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부분 읍·면지역의 교육·보육 서비스 공급의 특성과 관련한 해석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보육시설 외에도 각종 학원이나 학습지 등 보육시설에 대체적인 교육·보육 기관이나 서비스가 다양한 읍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동인구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농어촌 지역, 그중에서도 논·밭의 비중이 커서 면적에 비해 가구가 적고 아동인구밀도도 매우 낮은 면지역은 학원이나 기타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서비스가 진출하기 어려워 소규모 보육시설 외의 교육·보육 기관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기 쉽다. 이는 <표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

아중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보육시설 이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읍지역은 유치원이나 학원 등 기타 서비스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교육·보육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지역까지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보육 시설 이용률이 읍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고 가정내 양육이 선호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영아 가구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영아 572사례이며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33.2%,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66.8%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들 사례의 가구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이며 주소득원도 농·임·어업이 아닌 근로자의 월급여인 경우가 많아 농어촌 지역의 전형적인 특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연령대에 학력이 비교적 높고 무엇보다 취업모의 비율이 우리나라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sup>4)</sup>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취업모의 비율이 높아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0%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특성이 있는 농어촌 영아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추출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영아는 어머니가 취업중일수록, 대상 영아 외 영아기의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

---

4) 조사 시점인 2007년 7월 현재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1%이며, 비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이다(통계청, 2007).

주지가 먼지역일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반대로 조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부모·자녀 외 기타 동거하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유아자녀가 많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먼지역에서는 대리양육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은 대체로 가정내 돌봄의 수요와 돌봄인력의 공급에 따라 결정지워 진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였다. 즉,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을 경우 돌봄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했던 변수 중 ‘조모의 동거여부’나 ‘동거하는 기타 가구원수’ 같은 경우 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영아 자녀에 대해 부모를 대신하여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어머니의 취업 등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인력의 존재는 보육시설 이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영아 자녀수’는 가정내 돌봄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영아가 가정내 영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영아라는 점에서 더 어린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 대상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아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유아 자녀를 기관에 보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영아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이라 하여도 확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의 형태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고 어머니의 취업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가정내에서 얻기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농어촌 가정의 보육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이며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은 대리양육의 필요 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도 이용이 장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농어촌 지역의 아동 인구의 감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가정내 자녀수도 평균 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정내에서 형제·자매간의 접촉 기회도 많지 않을뿐더러, 아동 인구 밀도가 낮아 같은 지역내에서 또래 아동과 어울릴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먼지역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를 차지

## 농어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다수의 아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보육시설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용 부담 혹은 같은 지역내 보육시설의 부재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히 면지역의 보육시설 접근성과 질을 높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읍지역보다는 면지역에서 여러 가지 교육·보육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았고, 대리양육의 수요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면지역의 경우 지역이 넓고 아동 인구수가 희소하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가 보육시설이나 병설 유치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영아의 경우 유치원 이용이 제한되므로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종류일 가능성이 높는데, 영아의 특성상 보육시설과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것이 요구되므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특히 영아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이 면지역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면, 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양질의 보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읍지역, 더 나아가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다양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면지역에 있어서는 환경의 개선·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육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인력의 확보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

정책개발센터.

- 김지경(2004).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여성연구**, 통권 제 67호, 235-264.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김호정·허전(2008). 한글 SPSSWIN 14.0 통계분석 및 해설.
-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미발간).
- 전세경(1994). 도시 취업모의 탁아유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135-147.
- 정병오(2007).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51-173.
- 통계청(2007.7). 경제활동인구조사.
- Atkinson, A.(1994). Rural and urban families's use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3(1), 16-22.
- Berinde, D.(1999). Pathways to a Third Child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5, 349-378.
- Lehrer, E.L.,Kawasaki,S.(1985). Child Care Arrangements and Fertility: An Analysis of Two-Earner Households. *Demography*, 22(4), 499-513.

- 논문접수 2008년 10월 6일 / 수정본 접수 11월 13일 / 게재 승인 12월 12일
- 교신저자: 이정원 ,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dian74@kicce.re.kr

## **ABSTRACT**

### **A Study on Determinants of infants' use of childcare centers in rural areas.**

Lee, Jeo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se by children under 3 years old of childcare centers in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assess the effect of factors on children's use of childcare center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om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use of childcare centers in rural area are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3 years old, of children aged 3~5, and of other family members, employment of mother, the type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whether a grandmother lives with the family or not.

Among others, whether a mother is employed or no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children's using childcare center, which has no difference between in urban areas and in rural areas.

In rural areas, however, childcare centers in 'Myun' areas tend to be used more than in 'U-p' areas.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cessibility of

육아정책연구(제2권 제2호)

childcare centers be improved and national supports for childcare services be expanded especially in 'Myun' areas.

Key Words: childcare center, children under 3, logistic regression, rural area